

중국 洛陽白坡村의 權氏

權 寧 浩

秦皇島市 權氏服裝有限公司



▲ 낙양 백파촌의 권씨중사 현판



▲ 2008년 청명절에 필자가 낙양에 가서 권씨들의 환영을 받으며 찍은 사진. 앞줄 가운데가 필자이고 사진 위쪽의 글씨는 '중국과 한국의 권씨가 청명절에 우의를 맺고 환영하였다'는 뜻이다.

중국의 권씨權氏 가족이 세거하는 백파촌白坡村은 하남성河南省 낙양시洛陽市の 황하黃河 도구渡口에 있고 일대에는 인문경관人文景觀과 명승고적名勝古迹이 매우 많아 즐비하다.

백파촌의 권씨는 고제古制의 예의禮儀를 좇아 준수하며 사는데 이곳에는 권씨의 종사宗祠(종가 사당)와 옛적의 봉황대臺鳳凰大臺(크고 화려한 집)가 아직도 보존되고 있다. 매년 제사와 묘소를 소쇄掃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후한 중원문화中原文化和 권씨가족문화의 역사가 착실히 숨배어 있다.

• 權氏의 연원淵源

하늘로 솟은 나무는 반드시 그 뿌리가 있고 산을 품고 도는 물은 반드시 그 근원이 있다. 뿌리를 찾고 조상을 묻는 것은 선인先人에게 복을 기원하는 것일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밝혀 알고자 함인 것이다. 자손과 조선祖先은 혈맥으로 서로 이어져 있고 조선의 고난과 빛나는 전통은 핏줄로 대대손손 흘러 전해온 것이므로 그 유전流傳된 말미암음이 많고 적고를 물론하고 모두가 조상이 살아온 궤적軌迹의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조선의 연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매양 후인들을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이는 일상중에 가장 크게 유감스러운 일인 것이다.

연원을 따라 뿌리를 찾는 것은 모든 민족마다의 영광스러운 전통이고 매개每個 성씨의 기원과 변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인 것이다. 성씨의 학문은 아주 오래된 학과의 하나이다. 이는 여타 사회학、역사학、언어학、문자학、지리학、민속학民俗學、인구학人口學、방지학方志學(지방학) 등의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분야는 자못 특색이 있는 변연과학邊緣科學인 것이다. 이를 조금이나마 읽어 알려고 해도 일조일일一朝一日이나 일처일지一處一地에서 주효奏效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역사와 선인들이 이 방면에 매우 풍부한 내용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씨의 기원과 발전을 이해하는 데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 백파촌에서 권씨의 가보家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작은 역사자료를 열람하면서 그 가운데 권씨가족에 관한 기록을 적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①권씨는 염황炎黃의 정통자손이다.

권씨의 시조 무정武丁은 상조商朝(은殷나라) 제11대 천자天子이다. 무정의 아들 강降이 권權나라에 봉封해졌고 이후에 나라 권權으로 씨氏를 삼았다. 무정은 황제皇帝의 제28대손이고 권에 봉한 강降은 황제의 제29대 적손嫡孫이 된다.

②권씨는 여씨卞氏로 계출되

어 나갔는데 여씨의 선조는 거개가 현명하였다고 한다.

③성씨 역사의 연변演變

상고시대에 성씨와 씨氏는 의의가 서로 같지가 않았다. 고대의 성은 여자가 중심이었다 한다. 어머니로써 성을 삼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희姬、강姜、임妊、사씨 등의 성이 모두 여여자로 편방偏旁을 삼았으니 이는 사람들이 그 어머니는 알고 그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었다 한다. 씨氏는 성씨의 갈려나온 분지分支로서 부계씨족사회父系氏族社會에서 기원하였다 한다. 남자로서 씨가 된 것은 복희씨伏羲氏、신농씨神農氏、여와씨女媧氏와 같은 것인데 씨는 부친을 따른 것이므로 이로써 성이 씨의 근본이고 씨가 성에서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하夏、상商、주周나라에서는 성씨를 둘로 나누어 남자는 씨氏로 칭하고 여자는 성씨으로 일컬었다. 황제皇帝의 아들이 25인인데 그중 성을 얻은 것이 14인이다.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씨의 변화가 시작되어 복잡하게 되었고 진秦나라에

이르러 성과 씨의 구별이 없어져 둘이 하나로 섞였다. 서한西漢 시대에 132개의 성이 있었는데 당唐나라 때 193개성으로 늘고 북송北宋에 이르러 단성單姓으로 기재된 것이 444개, 복성複姓이 60개가 되었다. 성씨의 내원來源과 출처出處는 나라이름으로 씨가 된 것, 고을이름으로 씨가 된 것, 시호諡號로 씨가 된 것, 관직官職으로 성이 된 것, 봉지封地로 성씨를 삼은 것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런가 하면 사성賜姓을 한 것과 환난을 피하여 개성改姓을 한 것도 있다.

④권씨의 기원과 변천

무정武丁의 둘째아들 강降이 상의 천자 아래 제1위의 제후가 되었는데 이가 곧 권權나라에 나아갔고 권국은 호북성湖北省 일대에 있으면서 자손이 변연생식繁衍生息하였는데 뒤에 초楚의 무왕武王이 권국을 멸하였다. 그 자손은 권씨가 되었는데 뒤에 와서 진秦나라가 초나라를 멸망시키자 농서隴西로 이동하였다. 권씨의 성이 있는 것은 오늘에 이르러 이미 2600년의 오랜 역사를 가

지고 있고 세인이 권씨를 칭하여 천수세가天水世家라 하고 있다. 이후에 권씨는 각지로 파천播遷하여 흩어져 살게 되었으며 감숙성甘肅省과 영하성寧夏省、섬서성陝西省、천진天津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⑤권씨의 종사당宗祠堂 천수당天水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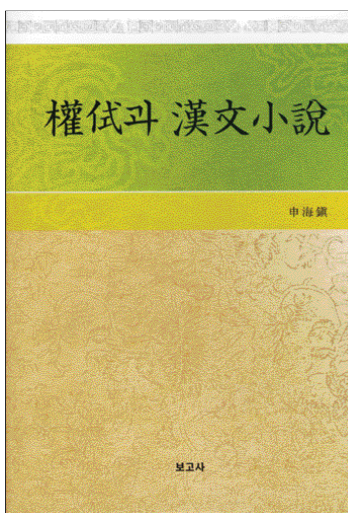
권씨의 종사당은 당호堂號가 천수당天水堂인데 이는 천수노가天水老家를 기념하는 것이고 나아가 천수天水로써 사당의 이름을 삼은 것이다.

⑥권나일가權那一家의 관계 본디 권權과 나那是 한 가문이었는데 나뉘어 두 갈래가 되었다.

그밖에 가보家譜에 관한 것, 백파촌白坡村 권씨, 백파촌권씨세계고략世系考略, 백파촌권씨세계와 발전, 권씨역대명인權氏歷代名人, 자배字輩(항렬자) 순서 등의 항목이 있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고 생략한다.

연락처 : 中國河北省秦皇島市開發區 權氏服裝有限公司、電話 086-0335-8077778手機 13903354618

전남대 국문과 申海鎭 교수 저서 국헌공 ‘權氏과 漢文소설’ 나와



국헌공菊軒公 권칙權氏이 한문전계소설漢文傳系小說 ‘강로전姜虜傳’을 지은 것이

이 몇 해 전 학계에서 밝혀지고 다시 전기소설傳奇小說 ‘안상서전安尙書傳’을 지은 사실이 발굴되어 나와 부쩍 관심이 모아던 중에 공의 위 두 작품을 재해석하면서 그 생애와 세계世系 등도 종합 분석하여 정리한 저술이 ‘권칙權氏과 한문소설漢文小說’이라는 단행본으로 나왔다. 저자는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신해진申海鎭 박사이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그 외가가 안동권씨이기도 하다는 저자는 고려대 국문과와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류 송사형 우

화소설、역주 내성지乃城誌、조선조 전계소설、한국고수필문학、조선후기 가정소설선、역주 조선후기 세태소설선、조선중기 몽유록의 연구、조선후기 우화소설선’ 등의 저서를 이미 낸 바 있다.

책의 머리말에서 저자는 ‘권칙은 전기傳奇소설을 지은 권필權譯의 서절庶姪이고 전계傳系소설을 지은 이항복李恒福의 사위일뿐만 아니라 전계소설강로전(1630)과 전기소설 안상서전(1651) 각 1편씩을 남기고 있다. 이 작품들은 그의 서열이라는 신분적 처지로 말미암은 현실비판의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권칙은 17세기 초반 한문소설의 유형간 교섭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작가이다. 이른 시기에 보인 서열문학의 현실비판의식을 살필 수 있는 작가이다. 이 책은 그러한 권칙의 작품으로 알려진 한문소설 강로전과 안상서전에 대한 역사이자 주석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아울러 작가의 생애를 살피며 재구하는 성격도 지닌 것이라 밝히면서 또 ‘권칙은 문집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산견되는 기록과 안동권씨중보 능동춘추 89호에 실린 송파공 권온權溫 지식문과 같이 새로 발굴된 자료 등을 통해 한번도 제대로 재구된 적이 없는 그의 생애를 완전히 새롭고도 세밀하게 재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 재구의 시작은 마땅히 망망

대해의 표류처럼 막막하였으나 권칙의 행적에 대한 흔적이 하나하나 찾아질 때면 중도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끝내 승정원일기에 탐색이 미쳤을 때 가슴이 터질 듯이 빨라진 심장의 박동을 들었다. 권칙의 행적에 대한 금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2년이 넘도록 한 인물에 매달려 그 행적을 재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 삶의 여정을,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재구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내용의 목차는 생애와 해제 및 번역과 주석 2부로 나뉘어 있고 생애와 해제는 다시 서열 권칙、한문소설의 해제、최선本最善本 선정의 세 부분으로 나뉘었으며, 한문소설의 해제는 ①강로전 ②안상서전 ③한문소설 작가로서의 권칙의 위상으로 분목되어 있다. 최선本 선정은 ①강로전 ②안상서전으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번역과 주석의 부는 동사잡록本東事雜錄本 강로전、죽창한화병기本竹窓閑話併記本 안상서전으로 갈라 신되 각기 ①원문 ②원문과 주석으로 나누어 많은 주석을 달아 풀어 옮겨놓고 있다. 최선본이라 한 것은 이 두 한문소설의 이본이 한둘씩 전하고 있어서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원본을 선택하였다는 뜻이다.

서울의 도서출판 보고사에서 2008년 7월 16일자로 초판이 나왔다. 값은 1,500원, 연락처는 출판사가 02) 922-2246, 저자가 010-5202-3944다.